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

철도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고 규률을 강화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겠다

김 기 성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철도운수부문의 투쟁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워 날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발전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률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철진철도국앞에는 5개년전략수행기간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고 화물수송량을 지금보다 2배로 끌어올려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철도국의 수송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를 통하여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발동될 때 두려울것도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철진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중송의 기적소리를 기세차게 울리며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릴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철도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기관차와 화차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기관차들의 대수리를 다그치는 한편 철송기관차대와 송정객화차대를 비롯한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기관차들의 견인작업량을 1.5배이상 높이겠습니다.

철도국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 철도수송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당의 병진로선의 요구대로 국방력강화를 위한 물동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수송을 최우선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송계획을 면밀히 세우며 렬차수송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겠습니다.

렬차운행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울뿐아니라 짐을 싣고부리우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며 5.18루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송량을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철도국에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문적으로 벌려 철도관리운영의 정보화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차량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제때에 진행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철도국의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수송전투로 들끓는 현장에 전투초소를 정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 총발동시켜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철도국앞에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당이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겠다

강 영 철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규정하시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수산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물고기잡이를 파학화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며 양어와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최근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수산혁명의 불길높이 배배주의를 부사르며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면서 우리는 결코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고 절사판철의 정신으로 투쟁할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기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명령지시를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기적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오늘의 어로전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제도보위전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뻐를 깎아서라도 수산부문을 추켜세워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하겠습니다.

파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 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수산사업소들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물고기잡이를 파학화하며 집단적경쟁열풍으로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겠습니다.

전략수행기간 양어의 파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고 물고기먹이를 국산화하며 그물우리양어와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려 양어에 의한 물고기생산을 늘이며 바다가양식면적을 더 조성하고 파학적인 양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바다나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황금해》시대의 고기배들을 더 많이 무어내며 지금 있는 고기배들을 만능어선으로 개조하고 어구공장들을 건설하며 배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가공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가공품을 안겨주겠습니다.

저는 수산전선을 지켜섰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생산돌격전을 드세게 조직전개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고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겠다

양 승 호 대 의 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받아안은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굴하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며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우리 련합기업소앞에는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현존발전소들의 전력생산에 필요한 설비들과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나서고있습니다.

련합기업소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설비생산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연생산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측정설비와 공구분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전투목표들을 정해진 기간에 어김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질을 확고히 올려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세계적수준에서 목표를 정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수력타빈과 발전기효률을 끌어올리며 발전기정량을 15% 줄이겠습니다.

대안공업대학에 각종 기술력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세워 기술발전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가며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특대형공작기계들을 현대화한데 기초하여 생산능력과 정밀도를 더욱 높이며 여러대의 공작기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당면하여 임의의 제품들을 다 가공할수 있는 종합가공반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로 제작하여 유연생산체계를 구성하며 풍구직장을 현대적으로 전설하여 각종 절삭공구와 전문공구를 생산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기업소의 일군들답게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발전설비, 대상설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업을 주시면 그 어떤 발전설비, 대상설비도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당에서 바라는 수준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겠다

최 일 룡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면서 경공업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경공업성앞에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 투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정신대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사상관점과 일본새로 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와 생산공정들이 최대한의 능률을 내도록 하며 설비현대화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겠습니다.

방직공장들에서 설비정비보수사업을 짜고들어 가동하지 못하고있는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성능높은 새로운 유연창대직기를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가며 방직공장들의 직기들을 현대화하고 대폭직기들이 도입된데 맞게 염색설비들을 개조하는 사업을 따라세우겠습니다.

편직공장들의 대환기들을 원상복구하고 양말보장공정과 재단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신진 충정의 70일전투의 그 기세로 투쟁한다면 아무리 높은 목표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정신대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사상관점과 일본새로 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와 생산공정들이 최대한의 능률을 내도록 하며 설비현대화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겠습니다.

방직공장들에서 설비정비보수사업을 짜고들어 가동하지 못하고있는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성능높은 새로운 유연창대직기를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가며 방직공장들의 직기들을 현대화하고 대폭직기들이 도입된데 맞게 염색설비들을 개조하는 사업을 따라세우겠습니다.

편직공장들의 대환기들을 원상복구하고 양말보장공정과 재단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신발생산공정의 각종 자동흐름선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겠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자재를 소비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겠습니다.

주체섬을인 비날론과 목화, PP섬유에 의한 천과 편직물생산을 늘이며 해당 부문들과 합심하여 수입원료를 국산화할뿐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염화비닐, 가소제를 신발생산에 널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학기술을 틀어쥐고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기 1차소비품의 생산수치에만 신경을 쓰던 경직된 사고관점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높아지는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발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려주신 원산구두공장에서 신발을 기어이 점령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황금해》시대의 고기배들을 더 많이 무어내며 지금 있는 고기배들을 만능어선으로 개조하고 어구공장들을 건설하며 배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가공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가공품을 안겨주겠습니다.

저는 수산전선을 지켜섰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생산돌격전을 드세게 조직전개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고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세멘트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

윤 재 혁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멍에지베인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우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멘트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기업소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한해에 수백만t의 세멘트생산목표를 첨령해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세멘트생산목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첨령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상원로동계급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주추돌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충정의 70일전투목표를 134.2%로 넘쳐 수행한 불굴의 정신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철광산을 개발하여 세멘트부원료의 하나인 철광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쓸모없이 버리던 점판암을 부가물로 리용하여 세멘트증산예비를 찾아낸 경험을 살려 점판암생산을 늘이며 여러가지 부가물을 더 많이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전력과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을 훨씬 늘이겠습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주요기대설비들의 생산능력과 가동일수를 늘이며 세멘트생산공정들의 능력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밀고나가겠습니다.

기업소에서는 년차별로 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삼청광산에 전망성있는 채탄장과 채굴장을 더 마련하고 운영을 잘하여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에서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여러가지 용도의 세멘트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를 새로운 세멘트최고생산년도로 빛내이겠습니다.

당면하여 허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주체조선이 어떻게 용을 쓰며 힘차게 전진하는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우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당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며 환경보호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김 경 준 대 의 원

산림복구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은 현시기 당에서 최대로 중시하고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실현의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14일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산림조성사업에서 기본인 나무모생산을 높은 파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나라의 산림조성과 환경보호사업이 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오늘 나라의 산림복구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중앙양묘장에 국산화비중이 높은 야외재배장과 판상용나무포전이 새로 전설되였으며 나무모캐는기계, 씨앗처리기계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아류산가스측정기를 비롯한 여러종에 수십대의 산림기계들과 환경측정 및 감시설비들이 우리의 힘으로 개발되였습니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파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한다면 그 어떤 요새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우리앞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의 파학기술적토대를 세계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면서 산림조성과 채종림조성을 진행하며 주요주민지구, 장하천들에 국가환경감시체계를 수립하여 도시들의 대기환경의 질을 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국토환경보호기관들과 정권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국토환경보호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립장에서 당의 산림복구전략, 환경보호전략집행사업을 빈틈없이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겠습니다.

산림복구전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파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육종하고 온실에서 2회전나무모생산과 사철나무심기를 실현하며 현대적인 감시측정설비에 의한 전국적인 대기 및 수질감시체계를 수립하는것을 비롯하여 산림 및 환경파학기술을 높은 토대우에 올려세우겠습니다.

중앙과 도, 시, 군양묘장들사이에 콤퓨터망을 구성하고 기술교류와 협의, 파학기술정보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양묘장들을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원도양묘장을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본보기로 꾸리고 널리 일반화하며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림운동,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선진적인 산업폐수정화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적극 도입함으로써 강하천과 바다오염방지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비한 밀폐장치, 송배풍시설, 제진시설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수, 정비, 보강하여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도달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드세게 벌리며 공장, 기업소의 보일라, 공업로들에 표준화된 정화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당이 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현신분투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산림복구전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근본고비를 내딛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겠다

김 진 국 대 의 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정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농업부문에서 첨령하여야 할 높은 투쟁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파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결과 례년에 없는 창가물을 이겨내지 못하여 국가알곡생산계획과 알곡수매계획을 미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의 불리한 농사조건에서도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파학농법들을 받아들인 농장들에서는 창가물을 이겨내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연때법의 적지 않은 포전들에서 단지모에 의한 소식재배와 논배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비료주기를 파학적으로 하여 정보당 10t, 11t이상의 수확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실은 농사가 잘되고 못되는것은 결코 하늘탓도 땅탓도 아니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수령절사옹위전, 당정책관철전,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였습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불타는 애국충정과 전인불발의 의지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우량품종들을 받아들이고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도입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파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점제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리용하여 농사일을 철저히 하면서도 알곡생산을 늘여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침땅을 늘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으며 지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농사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겠습니다.

본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적용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농사에서 반드시 풍작혼을 불러와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영농공정별비례관리를 짜고들며 큰물과 비바람,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여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음으로써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우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당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

리 광 근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정하시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에서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중요구성부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대외경제사업의 중요성을 통찰하고 언제나 대외경제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일군들이 대외경제사업에서 일변도에 떠달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폭넓게 확대해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주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벌려나가겠습니다.

무역계획을 동원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우고 계약상의무에 따르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 무역지대상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된 지료들을 틀어쥐고 세계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며 경제적수익성과 구매자의 요구를 바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가공수출품항목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을 국제적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가공품수출의 비중을 높이며 수출구조를 확고히 전환시키겠습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투자를 실현시키고 하부구조건설과 중요대상건설을 선행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장려하여야 할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체들에 대한 특혜 및 우대조치를 취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며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수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기업들을 발아 운영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민경제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역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무역활동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겠습니다.

당면하여 충정의 200일전투기간 중요건설대상들에 설비와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리칠 품으로 만들고 대외경제사업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겠습니다.

저는 대외경제부문의 한 일군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당의 대외경제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각오를 가지고 전략적안목으로 대담하게 작전하며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